제4강 분할의 방법 I

(1, 2교시)

이제 논의는 본격화된다. 문제는 소피스트들, 정치가들, 철학자들, 즉 이들 각각의 부류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플라톤은 이 작업을 위해 이미 『파이드로스』에서 선보였고, 후에는 『정치가』로도 이어지는 분할의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차적 현실은 복합적이다. 합리적 사유는 복합체들을 분석한다. 분석된 각각의 것들은 타자들과 섞이지 않은 단순한 것들이다. 단순한 것들을 찾아냈을 때 명료한 규정이 가능하다. 섞임에서 골라냄으로.

플라톤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은 근대 과학적 방식과는 판이하다. 사물들을 추상공간에 옮겨놓고서 그 기하학적 구조, 역학관계, 함수관계, 인과관계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사물들의 활동/기능 – 사실상 폴리스(그것도 아테네)에서의 활동 – 에 초점을 맞춘다. 활동/기능은 각 사물의 본질에 관련되며, 나아가 목적, '~다움'에 관련된다. 이 사고는 플라톤의 'locus classicus'에 속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소피스트'라는 기호가 아니라 소피스트라는 존재의 활동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소피스트라는 이 난해한 존재를 추적하기 위해 이방인은 "아주 커다란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같은 부류의] 보다 작은 일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다"는 격언을 끌어들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탐구를 이끌어 갈 방법을 다듬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좀 단순한 대상을 다루면서 거기에서 앞으로 다룰 큰 주제를 위해 하나의 모델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예컨대 낚시꾼의 기예 같은 것 말이다.

1) 말할 필요도 없이 낚시는 기예에 속한다.

2) 이방인은 기예를 크게 "농사라든가 그 외 우리 몸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 용기(用器)들을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일들, 그리고 모방술"을 포함하는 '제작술'과 "모든 형태의 배움과 앎, 그리고 또 장사, 싸움, 사냥 등을 통해 얻는 것들" 즉 '획득술'로 양분하고서 테아이테토스의 동의를 얻어낸다. 그리고 "미리 존재하는 것들과 이미 제작된 것들"을 얻거나 또는 지키는 것은 '획득술'이다. 낚시술은 우선 어디에 속하는가? 물고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획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획득술에 속하게 된다.

3) 그러나 획득술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선물이나 임대료 또는 구매 등에 의한 교환, 즉 합의에 의한 교환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의 것들 즉 말이나 행동으로 사물들을 취하는 것 즉 포획(捕獲)이다. 낚시술은 물고기와 합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포획술에 속한다.

4) 포획술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드러나게 행하는 포획은 경합(競合)이지만 은밀히 행하는 포획은 사냥=밀렵(密獵)이다.

www.artnstudy.com

5) 그리고 사냥은 다시 생명체의 사냥과 무생명체의 사냥으로 나뉘며,

6) 생명체의 사냥술 즉 동물사냥술은 걸어 다니는 동물의 사냥술과 헤엄치는 동물의 사냥술로 나뉜다.

7) 그리고 헤엄치는 동물의 사냥술은 다시 조류 사냥술과 어류 사냥술로 나뉜다. 낚시술은 경합과 사냥 중 사냥에, 생명체 사냥과 무생명체 사냥 중 생명체(동물) 사냥에, 걸어 다니는 동물 사냥과 헤엄치는 동물 사냥 중 헤엄치는 동물 사냥에, 조류 사냥술과 어류 사냥술 중 어류 사냥술에 속한다.

8) 다시 어류 사냥술은 포위해서 잡는 경우와 타격해서 잡는 경우로 나뉜다. 통발, 그물, 올가미, 바구니 등을 통해 포위해서 잡는 경우는 '그물사냥'이라 불리고, 낚싯바늘이나 작살 등으로 쳐서 잡는 경우는 '쳐서 잡는 사냥'으로 불린다.

9) 그리고 쳐서 잡는 사냥은 밤에 하는 불빛에 의한 사냥과 낮에 하는 낚싯바늘에 의한 사냥으로 나뉜다.

10) 또 낚싯바늘로 하는 사냥은 위에서 아래로 후려치는 작살 낚시와 위로 후려치는/낚아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낚시 사냥으로 나뉜다. 이렇게 해서 '사소한 예'를 통한 분류가 종결된다.

www.artnstudy.com